

내전 종식 리비아 ‘해방’ 공식 선포

카다피 사망... 나토, 군사작전 종결 선언 검토

민중봉기와 뒤이은 내전으로 쫓겨나 도피 중이던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일 고향 시르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이날 과도정부군은 카다피군의 최후 거점인 시르테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카다피의 사망으로 8개월여에 걸친 리비아 내전은 사실상 종식됐다.

카다피가 사망함에 따라 리비아 시민군 대표인 국가과도위원회(NTC)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리비아 해방’을 공식 선포하고 새 정권 수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사흘째 이어졌다.

리비아 관리들과 알자지라 방송은 21일 “국가과도위원회가 22일 리비아 해방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선거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드 지브릴 NTC 총리도 이날 “새로운 리비아, 통일된 리비아를 시작할 시기”라며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미래” 건설을 선언한 데 이어 22일에는 “의회 구성을 위한 첫 선거는 늦어도 8개월 안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브릴 총리는 새 의회가 첫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국가를 이끌어갈 임시정부 구성과 헌법 제정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알자지라 방송은 NTC가 해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분거지를 봉기의 분거지인 뱅가지에서 수도 트

리폴리로 옮기고 30일 이내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다피의 사망과 더불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작전 종결 선언도 임박했다. 프랑스의 알랭 쥐에 외무장관은 “나토가 리비아 군사작전 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NTC 제2인자인 지브릴 총리는 20일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TC 대변인 쥐에 외무장관은 “나토가 리비아 군사작전 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카다피는 이날 자신이 세운 호화로운 영빈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현장에서 있었던 과도정부군 아델 부사미르는 “과도정부군 병사들이 그(카다피)를 마구 때렸고, 누군가가 그에게 권총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시신은 하루 만에 미스라타의 오래된 정육점 병동고에서 대중에게 전시됐다. /연합뉴스



리비아를 42년간 통치했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69)가 20일(현지시간) 고향 시르테에서 부상을 입은 채 시민군에 생포됐다. 22일 국가과도위원회가 공개한 카다피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비디오 장면으로, 국가 과도위원회(NTC) 병사가 생포된 카다피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또 끝장 못본 한미 FTA ‘끝장토론’

외통위 찬반 견해 엇갈려... 오늘 추가 토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22일에도 사흘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찬반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식량주권 및 농업지원 ▲FTA와 법령 충돌 등을 놓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24일 추가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ISD가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반대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찬성 측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암을 100% 보장하게 되면 인간의 암 보험이 필요 없게 되고 미국 보험사가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며 “또 협정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

했다. 지자체가 화교급식 재료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냐를 놓고도 찬성 측은 “FT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은 “영향을 받는다”고 맞섰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한미 FTA 이행법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공식법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군 성범죄 오바마는 사과하라”

전남도의회,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제 263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현주(민노·비례)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군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잔혹한 범죄에 대한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사과와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및 시행 촉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정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주한미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

세로, 지난 10년간 3644명의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탄력받는 시리아·예멘 민주화시위

“다음은 아사드·살레 차례”

정권 붕괴 이어질지 미지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으로 시리아와 예멘에서 진행 중인 민주화 시위도 한층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독재자 카다피 사망 소식에 고무된 시리아와 예멘의 반정부 시위대는 하나같이 “다음은 우리 차례”라

며 독재 정권 타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리아 반정부 시위의 거점인 흡스에서는 지난 20일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가 카다피의 사망을 확인하는 순간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0년간 집권한 아버지로 부터 권력을 이어받아 11년째 집권 중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라면서 퇴진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시리아 전역에서는 금요기도회를 마친 뒤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예멘 반정부 시위대도 카다피의 사망을 축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반정부 시위의 거점인 수도 사나 변화의 광장에 텐트를 치고 머물던 시위대는 전날 카다피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텐트에서 나와 춤을 추며

“다음은 알리 차례”라고 외쳤다고 현지 일간 ‘더 내셔널’이 이날 전했다.

이들은 42년에 걸친 리비아 독재 정권의 진정한 붕괴를 축하하며 예멘과 리비아 국기를 흔들며 양국의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탄력을 받은 시위대의 힘이 쉽사리 아사드와 살레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리비아와 달리 시리아와 예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직 제한적이다. 게다가 아사드와 살레 모두 각각 동생 마헤르와 장남 아흐메드가 이끄는 최정예 공화군 수비대가 각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화된 특성화고 정책 내놓아야”

박철홍 도의원, 전문계고→인문계고 전환 비판

전남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교로 바꾸려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홍(당양 1·민주)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의 전문계고를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교육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 교육청의 자료를 인용, “2014년까지 18개 전문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문계고로의 전환 대신, 차별화된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고등학교 전체 졸업학생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고 대학 진학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특성화고교 육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남도 교육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중국 관광객을 전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무형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 2011 국향대전

2011 大韓民國 菊香大展 Grand Chrysanthemum Festival

국화가 만드는 세상! 아름다운 함평천지!

2011.10.28 금 » **11.13** 월 |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 문의: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3734 www.hampyeong.jeonnam.kr

☎ 주최: 함평군 |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전북도 | 한국관광공사 | 전남연구원 | 함평군 | KJB 함주은행

특별행사

- 함평군립미술관 개관
- 제2회 학생백일장대회
- 2011대한민국 난 명품대전